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폴더 8번> 구원자 예수	<가톨릭 성가 506번> 사랑으로 오신 주여	<폴더 9번 > 왜

### 제 1독서 | 창세기 12,1-4

#### 화답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좌)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좌)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 제 2독서 | 티모테오 2서 1,8-10

#### 복음 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 마태오 17,1-9

#### 오늘의 묵상 |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사명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이지요.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현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느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분을 부활시키시며, 이 길을 통해 당신 성자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길은 바로 제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여정의 끝이 바로 부활임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전망을 드러내줍니다... 고통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도착점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 빛,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겪는 십자가, 시련, 어려움들이 부활 안에서 극복되고 궁극적 완성을 얻게 된다고 보장해주시니다.

## 오늘의 복음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3 그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 에릭 바덴 주교의 성소(聖召) 이야기



A. 제 경험으로 볼 때, 예술은 복음 선포, 곧 희망을 일깨우는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합니다. 그러나 음악, 회화, 문학과 같은 예술은 또 다른 차원을 열어 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신비롭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점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저의 동포 윤 포세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그는 예술을 통해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며, 일부 평론가들은 그를 '신비주의적 작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Q. 가톨릭교회로 회심하고 다가가게 된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A. 저는 루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가족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제 깨어남은 열여섯 살 때 음악을 통해 체험한 깊고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문학을 통해서였습니다. 십대 시절, 헤르만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두 주인공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 모차르트의 미사곡과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전례 음악을 통해, 그리고 가톨릭 신자 친구들의 삶과 증언, 공부를 통해 교회를 더욱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Q. 예술이 카타르시스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신앙에 대한 깨어났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하여>

나는 거의 열여섯 살 무렵, 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돈을 모아 CD 플레이어를 산 뒤, 번스타인이 지휘한 말리 교향곡 제2번 「부활」 음반을 구입했다. 그 주제가 지닌 그리스도교적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한번도 신앙을 고백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적대적인 마음에 가까웠다. 그리스도교는 내가 씨름하고 있던 내면의 드라마 -모순과 양가감정으로 가득하고, 설교자들이 제시하는 확신과는 거리가 먼 그 현실- 로부터 도피하려는 막연한 소망처럼 보였다.

신앙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라고 밝히는 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적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태

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나에게 말리는 그저 화성과 관현악법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향곡을 듣는 동안 나는 냉담하게 거리를 둔 채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깊이 감동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중략)

**"믿어라, 내 마음아, 믿어라.  
아무것도 너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갈망해 온 것은 너의 것이며,  
네가 사랑하고 싸워 온 것도 너의 것이다.  
믿어라. 너는 헛되이 태어난 것이 아니며,  
헛되이 살지도, 고통받지도 않았다."**

이 말이 울려 퍼지자,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터져 나왔다.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그 반복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단지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내 의식은 달라졌다. 과장된 감정도, 냉정한 분석도 아닌 어떤 확신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나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한 따뜻함도, 황홀한 내적 움직임도, 눈물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진리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중략)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나는 '기억해 낸' 것이다. 음악에 의해 촉발된 특별한 통찰 속에서, 내 깊은 직관들이 확인되었다. 상처의 고통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폭력의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그 현실은 이미 내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아직 '영혼'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곳에서 느낀 고통은 분명 나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경험을 앞서고 넘어서는 근원에서 솟아난 것이었다.

나는 죽음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인류와 생생한 친교를 느꼈다.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확신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한 목소리가 노래하고 있었다. "헛되지 않았다!"

말리는 세상의 고통이 무한한 선의 안에 품어져 목

적을 부여받고 있기에, 우리는 절망이나 광기에 굴복하지 않고 삶을 마주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 선의를 - 다시 말해 그것을 만나고,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 나는 하나의 인격적인 현존으로 알아보았다. 나는 그것을 더 깊이 추구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얼굴을 알아보고 싶어졌다.

나는 성경에서 길잡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성경은 모든 의미에서 닫힌 책이었다. 진부한 격언과 난해한 교리의 창고처럼 느껴졌다. 어떤 표현들은 나를 거부감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들도 발견했다.

**밤에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제 속 깊은 곳에서 제 영이 당신을 찾습니다.**

내 탐구가 펼쳐진 공간은 가톨릭교회였다. 나는 처음에 그 길고 끊어지지 않은 역사에 이끌려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 따뜻하고 환대하는 공간을 발견했다.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 모순을 품어 주는 환경이었다. 그곳은 내 슬픔과 갈망을 이끌고 정확해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의 순간 안으로 끌어들여지는 성사의 신비 - 부서진 인간의 손 안에 맡겨져 다시 나누어지면서도 모든 것을 붙들고 치유하는 그 신비 - 를 깨달았을 때, 나는 집에 돌아왔음을 알았다.

교회는 내게 기억을 일깨우는 스승이 되었다. 그것은 때로는 진부하고 때로는 누추하기까지 한 내 삶을, 시간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동시에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 읽어 넣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머문다는 것은 때로 인류의 황량한 절규를 듣는 것이고, 악의 거친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막연히 바깥 어디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 2번  
"부활"  
유튜브 링크

## 공지 사항

### 1.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주일 미사 전, 2시 30분에 시작

• 기도 순서:

- 사순 제 3주일 (3월 8일) : 마태오
- 사순 제 4주일 (3월 15일): 요한
- 사순 제 5주일 (3월 22일): 사목회

### 2.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 성체조배 시간 중에 개별 고해성사가 가능합니다.

### 3. 고해성사 관련 사순시기 강의

• 일시: 3월 15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간식 나눔 후)

• 장소: 아란다 성당

### 4. 사순시기 고해성사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고해성사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해주소서.”  
(애가 5,21)**

###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 봉헌금 & 교무금 | (2월 21일 ~ 2월 27일)

봉헌금	\$ 161			
교무금	\$ 37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2-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